이 영화는 주인공 anne이 프레드릭과의 파혼에서 펼쳐집니다.

주인공 anne이 그 남자와 약혼을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 첫번째, 아버지께서 반대하였고, 두번째는 친구에게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.

7:01~7:44 영상

여기서 19살의 나이에 약혼을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당시 결혼은 같은 계급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더 낮거나 높은 계층과의 결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. 또한, 가족들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남편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했고 만약 아내가 더 높은 계층이라면 현재 지내는 생활과 다르지 않도록 해야했습니다. 따라서, 아버지는 이 둘의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.

1823년까지 영국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이었습니다. 이 당시 주인공 anne의 나이는 19세였고, 따라서 아버지의 반대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.

8:29 ~ 8:44영상

여기서 anne은 러셸 부인에게 탓하지 않고, 지금은 8년 전 설득을 당해 든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. 이 영화의 제목인 ‘설득’은 앤의 친구인 러셀 부인이 앤에게 프레드릭과의 결혼이 옳은 선택이 아님을 “설득했다”는 것에서 나옵니다. 설득이란 무엇일까요? 설득이란 나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을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말하는 것입니다. 가장 타당하고, 가장 합리적인 설득이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합니다. 앤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 친구 러셸 부인의 말에 설득되어 파혼을 결심했고, 그 남자를 또 다시 만나자 이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였습니다. 이 설득들은 과연 옳은 설득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.

참고문헌

Cove studio, “Marriage in the Victorian Era”, https://editions.covecollective.org/chronologies/marriage-victorian-era